

이달의 어항 ㉔ - 전남 신안군 비금면 원평항

해당화 핀 명사십리가 아름다운 원평항

천일염이 많이 나는 소금의 섬 비금도(飛禽島)



산으로 갈까, 바다로 떠날까?’를 고민한다면 이곳으로 가보자. 산과 바다를 함께 할 수 있고, 섬의 낭만과 적당한 가족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 비금도. 이러한 비금도 북쪽에 위치한 원평항은 계절풍의 영향이 적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국가어항으로 인근 원평해수욕장과 접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신안군내 4대 해수욕장중 하나인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고운 모래가 십 리에 걸쳐 뿌려진 것 같아 백사장 줄을 걸으면 가슴 속의 찌꺼기까지 녹아내리는 느낌이다.

새가 날아오른 형상이라 해서 지어진 비금도(飛禽島)는 목포항에서 54km 떨어진 3개의 유인도와 79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이다. 해안선 길이는 약 132km에 이르며, 지난 1996년에는 연도교가 개통되어 이웃 섬인 도초도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세바위가 바다를 향해 다리를 뻗고 있는 모습이나 바위위에 자연적으로 생겨난 줄사다리, 색조화가 오묘한 바위들이 흥동의 비경에 비금간다. 섬 주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륙의 산들도 바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절경을 뽐내고 있다.

비금도에 내리면 맨 먼저 해안가를 가득 메운 염전이 눈에 들어온다. 소금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비금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천일염을 생산해 낸 곳이다.

비금도에 염전이 생긴 것은 1946년의 일이다. 본래 강우량이 많은 신안은 일제 때부터 천일염을 만들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평안남도 용강군 주을염전으로 징용갔던 박삼만씨가 해방이 되자 고향에 돌아와 개펄을 막아 '구림염전'을 개

척한 것이 시초이다. 이 구림염전에 의한 소금제조방법은 주변 신안군 다른 섬까지 전해졌는데 비금도에서는 1948년 4백50세대의 주민들이 '대동염전조합'을 결성하고 보리개떡과 나물죽을 먹으며 1백여 ha가 넘는 광활한 염전을 조성해 냈다. 그 후 5.16쿠테타 직후에는 화폐개혁과 더불어 소금값이 한가마에 8백원까지 뛰어 염전 인부들까지 돈지갑 실밥이 터질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이야 외국 소금이 수입되고 화학 소금이 쏟아져 나와 옛 경기는 다 잃었지만 한때는 "돈이 날아다닌다"라는 뜻으로 비금도(飛金島)라고 불릴 정도로 염전사업이 호황을 누렸다.



주변관광지

비금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알려진 원평해수욕장은 비금도 북쪽, 원평항의 동쪽에 위치하며 백사장 길이가 4.3km, 폭이 30m(간조 때는 1백m)로 웬만큼 눈이 좋은 사람도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길게 펼쳐진 모래사장이 십리쯤 펼쳐져 있다 해서 명사십리라고도 불리운다. 특히 이곳 모래는 그렇게 고을 수가 없고 밟아도 발자국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것이 특징이어서 행어 점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곱고 부드럽다.

비금의 역사적인 유적지로는 광대리 뒷산 응골을 넘는 고개마루에 성치산성이 있다. 고려시대에 축조되었다고 전하는 이

성은 주위가 130간 되는 돌성이다. 1231년 몽고병이 침입하기 이전만 해도 성 밑에 마련된 넓은 땅에서 군사훈련을 하느라고 함성과 말발굽소리가 요란했다고 한다.

오늘날까지도 성치산성의 맨 꼭대기에는 봉화대가 뚜렷이 남아 옛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성치산성 봉화는 옛날 우리나라의 서남해 도서지방을 연결하는 곳으로 흑산 봉화를 받아 목포 유달산, 무안 삼향왕산, 함평 웅산, 개성, 강화로 이어졌으며 봉정이 주둔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철새들의 서식지인 칠발도를 비롯하여 마을의 재앙이 없도록 기원하는 내월리 석장승, 용이 살다가 사람들의 등살에 못이겨 승천했다는 용소와 서산사와 섬 내부에 있는 기린봉, 떡메봉 등도 볼만한 구경거리이다.

먹거리

비금도는 '시금치의 섬'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이곳 시금치는 잎이 두터우며 신선도가 좋아 '섬초'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재배량도 만만치않아 서울 사람들이 석 달은 족히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온 섬을 파랗게 메우고 있는 천연 무공해 작물인 시금치는 전혀 농약을 쓰고 있지 않으며 바다바람과 게르마늄 토양에서 재배되어 특허청 제 2174호로 등록, 판매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6월까지 살이 단단하게 들어찬 꽃게 역시 이곳의 별미이다.

찾아오는 길

- 차도선

- 1) 비금수대-목포(대흥페리 1, 3, 7호) 07:30, 10:00, 16:00-2시간 30분
- 2) 목포-비금수대(대흥페리 1, 3, 7호) 07:00, 13:00, 15:00-2시간 30분
- 3) 비금가산-목포북항(비금농협카페리호) 09:00, 15:30-1시간 50분
- 4) 목포북항-비금가산(비금농협카페리호) 07:00, 11:00-1시간 50분

- 쾌속선(남해프린스, 남해퀵, 골드스타)

- 1) 비금수대-목포 11:50, 17:00-50분
- 2) 목포-비금수대 07:50, 08:00(짙수일), 13:00-50분